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기도 하라고 요청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를 잘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너희는 모든 일에는 관심을 쏟고 있으나 너희의 영혼과 영적인 삶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않고 있다. 너희는 영혼의 곤한 잠에서 깨어나 온마음을 다하여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하여라. 회개하여 성화될 것을 결심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영혼과 너희들의 모든 일들이 완전함에 이르도록 너희를 부른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우리의 천상 아버지이신 하느님, 평화의 여왕이신 성모님과 함께 당신 아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오니, 당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며 당신은 평화의 하느님이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화해와 그리고 죄와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셨음을 잊지 않도록 은총을 저희에게 주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것에 우리 마음을 열도록 은총을 주소서. 청하오니, 희망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축복해주시어 당신이 우리의 희망의 하느님이심을 그들이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평화를 갖지못한 사람 모두를 축복해 주시어 그들이 당신은 평화의 하느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소서. 중오하는 사람 모두를 축복해 주시어 그들이 당신은 사랑의 하느님이심을 잊지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어 그들이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빛이심을 잊지않게 해 주소서. 앓고있는 사람 모두를 축복해 주시어 그들이 당신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가정 그리고 성 교회와 모든 세상을 축복해 주시어 우리가 당신은 우리의 하느님 이시고 아버지이심을 결

메주고리에



발행인 : 김한기 시몬 신부 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코 잊지않게 해 주시고 당신과 함께 평화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소서. 오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쁜 일들을 잊기가 우리에게는 그렇게나 어려웠던 것을 용서해 주시어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께 봉사하게 해 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모님을 따라 함께 이 모든 것을 당신께 청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1999년 10월 28일 / 슬라브코 신부님의 글

부활에 대한 기도

이제까지는 늘 아픔만 드렸는데 이제 부활 하셔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는것이 기쁘셨을 것입니다.



류해욱 신부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우리 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 시기에 기도와 보속의 생활을 하시면서 열심히 사신 그만큼 부활의 기쁨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활 시기에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에 대한 기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부활을 기도하면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주 조용한 사건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시는가? 라고 묻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서의 말씀을 들어 '나의 길은 너의 길과 같지 않다' 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용히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은 당신의 탄생이 그렇듯이 아주 조용한 사건이었고 그 이미지는 마치 웅달샘과 같습니다. 깊은 산 속의 웅달샘에 물이 고이면 소리 없이 조금씩 흘러내려서 축축이 적셔 주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입니다. 그 웅달샘에서 처음에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입니다. 조용한 사건의 첫 열매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당신이 사랑하던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신 것은 평화였습니다.

부활이 커다란 기쁨임에는 틀림없지만 부활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알렐루야' 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무엇을 느끼고 난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그 평화가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

이나시오는 그의 '영신수련' 에서 부활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발현하셔서 처음에 하신 것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알려 줍니다. 성 이나시오는 부활에 대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로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나타나심' 을 관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성서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여 기록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신 당신 어머니 성모님께 나타나셔서 그분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부활하신 것보다도 드디어 이제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린 것이 더 기쁘셨을 것입니다. 본의는 아니었지만 이제까지 늘 아픔을 드렸는데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어머니께 나타나심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쁘시고 감동이셨을 것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어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서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위로를 주셨고 당신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는 물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세 번 배반하였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하셨는가? 우선 사랑하던 사람들인 그들을 확신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시키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확신시키셨습니다. 성모님께서도 여러 곳에 발현하셨고 특히, 메주고리에에서 지속적으로 발현하고 계시는데 발현하셔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평화라는 것과 또한 그것들이 모두 조용한 사건이었다는 것과 성모님께서도 발현하셔서 하신 일이 사

람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 발현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모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모범을 따르고 계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느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활시기 동안 성서에 있는 한 사건, 한 사건을 따라 가면서 해도 되고, 그냥 부활의 그 조용한 분위기 안에서 성서에 머물러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지 관상하는 그 마음 자세는 조용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의 사건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올 것입니다. 그 느낌에 머물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기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활 대축일에 들은 요한 복음에 의한 부활 사건에 대한 대목으로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점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먼저 복음 말씀을 읽어야겠지요. 복음 말씀은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장면을 그리면서 느끼면서 읽어야, 그리고 성서 말씀 행간의 언어들에 음미해야,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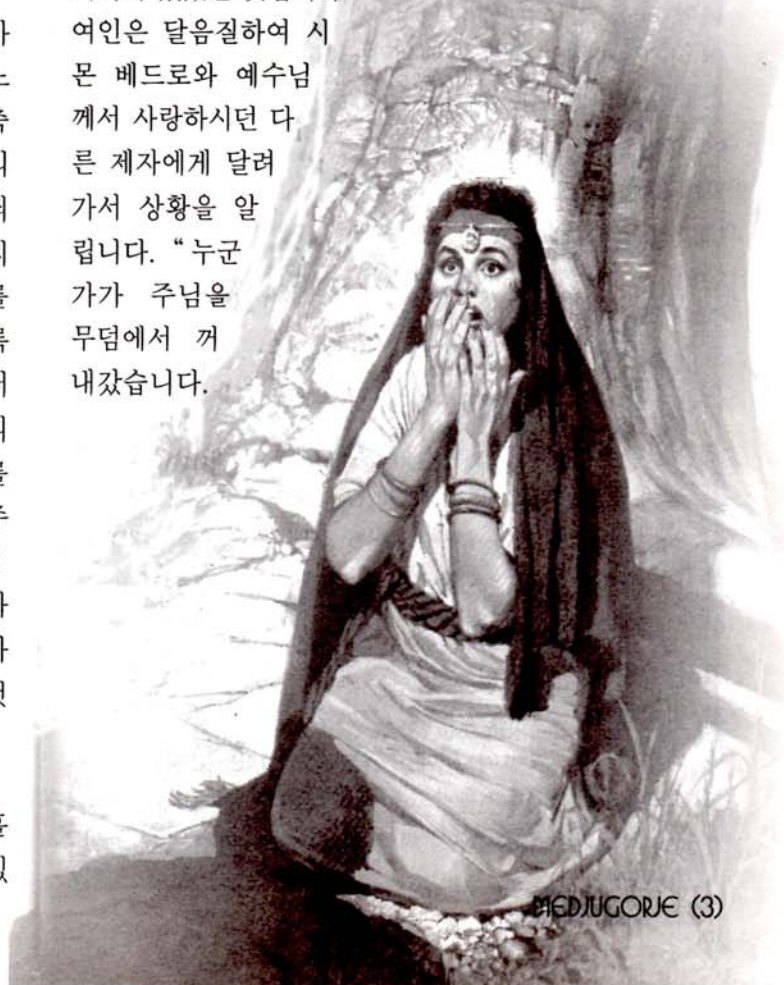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성서 대목,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는 사건 앞에 앉아서 머물면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보고 그냥 그 느낌에 따라갑니다. 부활 대축일 아침 복음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우리에게 흔히 죄 많은 여자,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 많은 여인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지극한 사랑을 베풀었던 여인, 예수님 발치에 앉아 향유를 부어드리고 눈물로 발을 씻어 드리던 여인이지요. 비록 한때 죄를 많이 지었었지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지요. 복음에 나타난 여인의 행동에서도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께서는 말없이 받아 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성서 안에서는 가장 먼저 그 여인에게 발현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한 그만큼 사랑은 되 돌아옵니다. 다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기실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겠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무덤에 묻은 후 사흘 동안을 사랑하던 사람이 그 무덤을 찾아가는 관습이 있

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관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지요. 우리 풍습에 죽은 혼이 떠돈다고 진혼제 등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유대인들도 죽은 혼령이 사흘 동안을 무덤 주변을 떠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던 사람이 그 혼을 위로하기 위해 사흘 동안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묻은 다음 날이 아침 안식일이었지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거의 절대적이었지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무덤을 찾아가는 일은 금기되어 있었지요.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얼마나 달려가고 싶었겠습니까? 하여,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그 여인은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느끼며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산의 한쪽 옆을 석굴처럼 파고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아 놓았는데 겨우 들여다 볼 수 있을 만큼 조금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조그만 틈으로나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덤에 갔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커다란 돌이 쾅그러니 치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달음질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상황을 알립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여인은 놀랍고 두려워 어쩔 줄을 몰라하면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이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만형 격이었던 베드로는 마리아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그 말을 듣고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이 달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젊음이었던 요한이 먼저 무덤에 다다랐지만 베드로가 당도하기를 기다려 함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요. 윗사람에 대한 배려, 마음씀이 돋보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의 머리를 싸맷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었다” 라는 표현은 없는 말이 첨가된 오역이지요. 그냥 “놓여져 있었고 수건은 따로 잘 개어져 있었다” 라고 해야 옳은 번역입니다. 여러 영어 번역 본들은 대개 옳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e saw the linen clothes lying there..., not lying with the rest of the linen clothes, but lying apart from them...” 굳이 그 차이를 지적하는 것은 “흩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수의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놓여 있고, 특히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따로 잘 개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요한은 시체가 함부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주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시리라는 당신의 예고와 성서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성서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세번이나 예고하셨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는데 자기의 눈으로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서야 갑자기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음은 이렇게 문득 우리에게



게 찾아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느꼈을 그 느낌, 그 감동,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느껴지도록 청하면서 머무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관상하면서 제가 느끼고 새삼스레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이란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달려갔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무덤에 수의와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사랑이 그로 하여금 상황을 깨닫고, 알아듣고, 믿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서로 나누고 있던 사랑의 마음, 그것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끈 것입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주님이 없어졌다는 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 볼 엄두도 못 내고 밖에서 울고 있었지요. 그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인이여, 왜 울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슬퍼하는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극진히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다는 것이 우리

의 가슴을 축축이 적셔줍니다. 사랑하는 그만큼 사랑 받은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할 때 사랑은 소리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도 안에서 깊이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관상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지녔던 사랑을 지니도록 청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을 축하드리며 부활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가슴으로 느끼며 거기서부터 스며 나온 기쁨이 우리의 일상 삶 안에서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M**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 2고린 13,5 -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적인 죽음과 영광스런 부활을 통하여 당신이 가신 길이 우리가 걸아가야 할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체 안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주님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삼년간 공생활을 하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신 후 잡히시어, 목요일 밤에는 하느님을 모독한 죄로 대자세와 의회원들에게 재판을 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 금요일에 대권을 노린 정치범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타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 형에 처해져,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마태 27, 45-50>.

죄 없으신 예수님은<1베드 2,22>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으로<요한 1,29> 십자가에서 희생되시어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하셨습니다<히브 9,12>. 대사제이신 예수님은<히브 4,14> 참 인간인 동시에 영원하신 참 하느님이시기에, 그분의 희생제사는 참된 희생이며, 오직 한번 희생되셨지만 무한하고 영원한 효력을 나타냅니다<히브 10,12>.

예수님은 당신 말씀대로 죽으셨다 사흘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십니다<로마 4,25>.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계실 때에 여러번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셨고<마태 16,21 ; 17,9, 22-23 ; 20,18-19 ; 26,

32>,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시어 성서에 기록된 것만 해도 11 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마태 28,1-10 ; 요한 20, 19,26 ; 루가 24,13-35>, 그 중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교우들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었습니다<1고린 15,6>. 오늘날 까지도 남아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과 제자들의 생활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회당장의 딸, 과부의 외아들, 라자로는 그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열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한 20, 19,26>, 제자들이 주님이심을 알아차렸을 때 즉시 사라지기도 하시는 등<루가 24,31>, 자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앞으로 부활할 우리의 몸은 사기 지은(四奇之恩)을 입어 손상되지 않고 빛나며 빠르고 사무칩니다.

부활한 몸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사불멸할<1고린 15,42> 뿐만아니라 다시는 아무런 상처나 고통도 받지 않는다<묵시 21,4>는 뜻입니다. 부활한 의인의 육신은 해와 같이 빛나고<마태 13,43> 이곳 저곳으로 옮겨 가는 것이 마치 생각처럼 빠릅니다. 아무 수고나 피곤함이 없이 수만리도 순식간에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사무침(subtilitas)이란 무엇이든지 꿰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한 육신은 광선이 우리를 통과하듯이 자신이나 다른 물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 물체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겨진 문을 열지 않고 나타나심으로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삶이 우리가 걸아가야 할 길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인간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지만, 악에서도 선을 끌어낼 정도로 전능하신 하느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필립 2,8> 영광스럽게 부활 시킴으로써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밀지고 어리석은 삶인 것 같지만, 그것이 올바른 삶이며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다보면 바보스럽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보스러운 삶이 부활에 이르는 삶입니다. 인간 예수님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둠 중에도 사랑에 살고 사랑을 살리며 보다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갈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체안에 계신 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시기에 작은 성체 안에도 온전히 살아계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체를 통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나도 당신처럼 살다 죽은 후 당신처럼 부활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성찰과 묵상

나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의식하며 영성체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성체를 한 후에 나에게 오시어 내 안에도 살아계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삶을 본받고자 했는지요? 아니면 영성체를 한 후에 곧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조차도 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영성체를 통하여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시어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현존하시는 예수님이 영성체 후 내 안에도 현존하심을 얼마나 생각해 보았는지요? 내 안에 계심을 잊고 살았다면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를 살아있는 감실로 삼아 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나도 그분의 삶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고, 당신 권한의 일부를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
(6) MEDJUGORJE

신 후, 성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습니다<마태 28,18>. 그리하여 천상천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主) 또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요한 20,23>과 세례를 베풀 권한과 가르칠 권한을 주셨습니다<마태 28, 19-20>. 그리하여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천주교회는 오늘날도 이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성체를 통하여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승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시다<1고린 15,5-8 ; 사도 1,3> 승천하셨습니다<사도 1,9>.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의 신학적 의미는, 주님으로 현양되었고 하느님 존재의 차원으로 넘어 가셨다는 뜻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현존하시되 우리 오관으로는 부재양상으로 현존하십니다. 즉 그분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은총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시간, 공간, 물질 등의 자연법칙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존재 양식대로 존재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러기에 작은 성체 안에도 온전히 살아 계시고 영성체로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 안에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요한 6,56>

성체 안의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 주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섬김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랑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초대 교회의 신자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새로운 언어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심령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순절 때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당신이 교회안에 일으키신 성령체신 운동을 통하여 당신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심령기도를 하게 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날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을 닮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다고 성서는 말합니다<필립 2.10-11>.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모든 권한을 가진 분이시기에, 천상에는 모든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이 그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찬미합니다. 또한 우주만물도 주님이신 그분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셨기에 섬김을 받고 계십니다.

성체 안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생활을 주관하셔야 할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무수한 이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모르고 있고, 수많은 신앙인들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 못합니다.

개인과 인류의 역사는 하느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주권자로서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며, 역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에페 1. 10>.

성체 안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만나뵈을 주님이시고 재림하실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만나 뵈게 될 분이 성체를 통하여 나에게 오십니다. 지금 내가 반갑게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무슨 면목으로 뵈겠습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실 구세주이십니다<사도 1.11 ; 루카 21.27>. 그분이 재림하실 날은 전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는 생활을 합시다<루카 21. 35-36>.

성체 안에 계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주님이시고, 만물의 섬김을 받으며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재림하실 구세주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주



인된 권리를 인정하고, 성체를 통해 내 안에 오시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 부활로써 주님이 되시어 천상천하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들 마음속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며 미래 세계에 대한 희망을 일으키신다.

-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38 항 -

성찰과 묵상

나는 성체성사를 세우셨고 성체를 통하여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나의 주님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영성체를 한 후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분께 찬미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예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천상천하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들이는 기도를 자유기도와 심령기도로 바치십시오.

성체신심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성체 안에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분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성체신심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이신
가? 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
다. 성체 안에
계신 분은 참
하느님이신 동
시에 참 사람이
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
이신 그분께 마땅히

경배를 드리고 사람이신

그분과 친밀한 사귀를 나누며, 나도 그분처럼 물과 성령
으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심에 감사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체 안의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스승이신 동시에 예언된 구세주이십니다. 따
라서 우리는 스승이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오류와 죄
로부터 구원되어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체
앞에 머무는 성체조배와 영성체를 자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체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므로 천상천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러므로 우리도 살다가 죽은 후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살면서 성체 안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
기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서 누
리시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성체로 구세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영혼은 행복하도
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그들 안에
서 구세주를 볼 것이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추니!
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했다. 우리 구
세주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은 무엇이든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하느님께
그분의 외아들을 달라고 할 생각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이
감히 생각하고 구할 수 없었던 것을 하느님께서서는 주셨다.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그분의 아들을 우
리를 위해 죽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구할 자격이 있는가?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무한하고 헤아릴 길 없는 사
랑으로 그렇게 안배하셨다. 참으로 사랑이신 하느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

-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

<신앙 성숙을 위한 성체신심 세미나 中 에서>

(8) MEDJUGORJE

부활

**겉질을 깨는 아픔을 통해
노오란 병아리가 새 세상을 봅니다**

**단단한 땅을 뚫는 고통을 통해
파아란 새싹이 새 세상을 봅니다**

**끊임없이 저질렀던 잘못들이
회개와 보속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눈물로 정화된 맑은 영혼이
죄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물결치는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희망으로
당신을 바라보니
오오 내님이시여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최예숙 세실리아

그 아이를 나를 위해 맡아주면 좋겠다.

찬미 예수님, 성모님

존경하는 요조 신부님께

저는 사랑하는 성모님께서 요조신부님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저희 가정에 베풀어주신 큰 은혜를 요조신부님에게 알리기를 원하심을 강하게 느끼며 순명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있는 곳은 미국 뉴욕의 롱아일랜드입니다. 제 이름은 남 미카엘라이며 남편의 이름은 남홍익 그레고리오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2남 2녀의 네 아이가 있습니다. 큰아들 데니엘은 22살이고 큰딸은 20살 작은딸은 17살 그리고 막내는 5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막내 크리스토폴에 대한 것입니다.

1995년 1월 저는 하느님께서 또하나의 생명을 저희들의 가정에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몹시 기뻐했지만 저는 그때 나이가 39살이고 아이들도 자라서 활동이 자유로울 때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고 또 저도 유산 경험이 있어서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몹시 괴로웠기 때문에 이번에 임신한 아기는 태어나지 못했던 아기의 몫까지 잘 키워보겠다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받아들였습니다.

1995년 2월 우리는 첫 번째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 나이가 많으니 양수검사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저는 양수검사의 목적이 남과 여를 분별하고 더구나 낙태를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거절 하였습니다. 의사는 저의 피검사를 하였는데 며칠후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아기에게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하며 양수검사를 받아야만 한다고 강력하

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또 저희들의 세 아이들도 모두 다 건강하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의사는 불안한 마음은 아기에게 좋지 않으니 검사 잘못된 것일지 모르니 검사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번째 검사를 받았을 때 양수검사를 하던 의사는 아기의 목 뒷편에 있는 머리만한 크기의 하얗게 보이는 큰 혹을 가르키며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세 번이나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태중의 아기 사진을 몇번 본 경험이 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서 몹시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그 며칠은 몹시 힘든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우리 아기가 염색체 18번에 이상이 있는 일명 신드롬 아기라는 것입니다. 믿을수가 없어서 2번, 3번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똑 같았죠. 이제는 사진까지 만들어서 보여주는 현대과학의 잔인함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냐고 마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배신하신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저는 두렵고 무서워서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때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면서도 남자이기에 내색도 못했던 남편은 후에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입니까.” 하며 자기가 갖고있던 믿음의 가치관과 현실의 고통사이에서 엄청난 시련의 시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던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게 되는 것인지를 알기에 가슴 아팠으며 또 아기를 낳지 않는다면 그동안 자기가 가져왔던 가톨릭 신앙관이 무너지는 것이기에 그것 또한 자기에게는 차라리 죽는게 더 낫을 정도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어서 하루 하루가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흔들리면 틀림없이 아기가 죽게되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은 내색도 못하고 울고만 사는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크리스토폴이라는 이

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기가 이름이 있으면 가족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며 아기를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시길래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시는지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통하여 그 뜻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 큰 세 아이들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오히려 저를 격려하면서 어떤 형태의 아기가 태어나도 자기들의 동생이니까 사랑해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엄마를 도와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괄량이 막내딸을 통하여 당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기의 상태를 다 듣고 난 막내딸은 저를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우리 가족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일이니까 모든 것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이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

그 때 제 마음에는 어떤 느낌과 함께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 데니엘은 아기를 낳는 것은 엄마가 선택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아기와 엄마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낳은 것으로 생각하면 아기와 엄마가 불행해 진다고 하며 오히려 저를 깨우쳐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면서 잘 지낼 수 있었지만 저희 가족이 겪은 고통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마 책으로 써도 될 것입니다. 특히 남편과 저는 구약에서 말하는 온 몸이 녹아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어느날 밤, 막내딸 제니파가 앞으로는 착한 크리스찬이 될터이니 크리스의 염색체를 치유해 달라고 혼자 기도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아파 울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겪는 사람들 사이의 오해와 마음의 상처들

도 여유있는 사람들이나 가질 수 있는 욕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서 이리실수가 없다고 하소연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한 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암흑과 같은 어두움 뿐이기에 두려웠습니다.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서 울고있는 그 때 갑자기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카엘라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네 뱃속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크리스의 밝은 모습

있는 그 아기도 나에게게는 무척 소중한 생명이란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를 나를 위해서 맡아주면 좋겠다....” 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너무나 평화스럽고 따뜻하였으며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저에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알고 제 마음은 엄청난 기쁨과 위로를 느끼며 “네” 라고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도 아기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모든것을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며 그렇게 좋아하는 담배를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1995년 초여름에 한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룡아일랜드 St. Paul성당에서 치유은사를 가지신 어떤 신부님의 특별 강론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했으나, 저는 이미 늦었기에 안가겠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있던 큰아들 데니가 화를 내면서 “엄마, 크리스가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엄마가 그런것도 안하면 어떻게요” 하며 저에게 가야한다고 재촉했습니다. 큰아들이기에 갖고 있는 데니의 심적 부담감을 생각하며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울면서 성당으로 가서 보니 예절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으나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포근함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잠시 후 성체 강복이 있었습니다. 배부른 몸으로 도저히 인과를 꿰고 들

어갈 수가 없어서 저는 제의실 옆에 있는 감실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때 강론을 끝내신 요조 신부님이 제의실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기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의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함께 계시던 미국 신부님들이 저를 나가라고 했지만 저는 무조건 요조 신부님 앞에 무릎꿇고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요조신부님 당신은 저를 쳐다보시더니 제 곁으로 오시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 저는 마음의 평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신부님의 이름이 요조 이신것도 메주고리에라는 곳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물에 빠져서 죽게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갖는 희망같이 생각하고 매달렸던 것 뿐입니다.

그 후에도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탄이 공격해오는 절망의 시험에 빠져서 울면서 지내는 일이 매일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그 때 가장 힘든 시험중에 하나는 믿고 의지하던 이웃들의 낙태권유였습니다. 그분들은 크리스를 낳으면 가정이 그리고 공동체가 불행의 고통을 받게 되는데 하느님은 고통을 원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느님이시니까 그만큼 고통 당한 것만해도 하느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낙태시키라고 하였습니다. 또 특별히 남편에게는 신앙의 교만에 빠져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알게된 것이지만 사람들은 낙태행위를 현대의학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몇 번의 낙태경험이 있으며 더욱 무서운 것은 죄의식이 전혀없는 아주 단순한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죄없는 아기가 수도없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함께 동참해주신 덕분에 1995년 9월 7일 우리 크리스는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는 아기를 보게된다는 기쁨과, 한편으로는 앞으로 겪게될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서워서 진통을 하면서도 아기의 울음을 들으면서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분만실에 함께 있던 남편에게 담당의사가 “어? Mr.남 아기가 정상이네.” 하고 놀아워 하는 음성이 들렸고 “그럼요, 우리 크리스는 정상이고 말구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남편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저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의사가 검사 때 앞으로 크리스의 지능은 평생 35정도밖에 안될것이라고 했지만 우리 크리스는 굉장히 영리하여 형과 누나들이 하는 컴퓨터를 옆에서 보고

배워 웬만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놀랄 정도로 혼자서 알파벳도 다 배웠습니다. 지금도 종이와 연필을 장난감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다 큰 세 아이들은 크리스를 마치 자신들이 낳은것 처럼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모든 것이 메주고리에 성모님이 베풀어주신 기적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크리스의 치유를 믿지 못하는 의사들 때문에 크리스는 태어난 다음날 다시 또 정밀검사를 받게 됐는데 저희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변덕 많고 이유가 많은 인간들을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크리스의 염색체 18번의 문제를 그대로 두시고도 크리스가 정상인이 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때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과 말에 못자국을 그대로 갖고 오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이 하신 일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도 문제의 염색체 18번이 완전히 치유됐다면 의사의 오진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것이기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크리스의 염색체를 그대로 두신것을 성모님의 도움으로 알게되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로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을 알게 된 후 우리 가정의 변화된 삶입니다. 남편은 10여년 동안 다니던 미국의 큰회사 지점장을 그만두고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U.S.A.를 만들어서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작은 책으로 만들어 매 달 한권씩 만부를 만들어 미주 전체와 원하는 모든 곳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부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뜻에 합하여져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 드리게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성모님의 사랑과 은혜로 요조 신부님의 모든 삶과 시간을 보살펴 주시길 기도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 **M**

<이 기사는 성모님께서 베풀어주신 기적의 치유이기 때문에 요조 신부님을 통하여 메주고리에 본당에 보고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도록 우리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성서 기도문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아버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 주시어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성서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가 성서를 멀리하거나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얼을 새롭게 하시어
 성서와 친숙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 하느님,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적 지매님들의 신앙 책임감을 보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
 신 후 지내시는 하루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
 신지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소
 중한 체험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시어 보이
 지 않는 하늘나라의 증거자가 되시도록 초대합니다.

<원고 보내실 곳>

평화의 모후 센터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11743
 Tel.(631)367-6191 / Fax.(631)367-6194

4월 성서 읽기표

날짜	요일	구약	신약	Check
1	일	출애 33,1-35,29	마태 18,6-35	
2	월	35,30-38,20	19,1-26	
3	화	28,21-40,38	19,27-20,16	
4	수	레위 1,1-4,35	20,17-34	
5	목	5,1-7,36	21,1-17	
6	금	7,37-10,20	21,18-32	
7	토	11,1-13,46	21,33-22,14	
8	일	13,47-15,33	22,15-46	
9	월	16,1-18,30	23,1-36	
10	화	19,1-21,24	23,27-24,14	
11	수	22,1-23,44	24,15-35	
12	목	24,1-25,55	24,36-25,13	
13	금	26,1-27,34	25,14-46	
14	토	민수 1,1-3,51	26,1-30	
15	일	4,1-6,21	26,31-56	
16	월	6,22-9,23	26,57-27,14	
17	화	10,1-12,16	27,15-44	
18	수	13,1-15,21	27,45-66	
19	목	15,22-18,7	28,1-20	
20	금	18,8-20,29	마르 1,1-15	
21	토	21,1-22,41	1,16-39	
22	일	23,1-25,18	1,40-2,12	
23	월	26,1-27,23	2,13-3,6	
24	화	28,1-30,17	3,7-35	
25	수	31,1-33,49	4,1-20	
26	목	33,50-36,13	4,21-41	
27	금	신명 1,1-2,37	5,1-43	
28	토	3,1-4,49	6,1-29	
29	일	5,1-7,26	6,30-56	
30	월	8,1-11,25	7,1-30	

늘 기쁜 마음으로

책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도움도 필요하기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장 한장을 넘기며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담을 수 있을것 같군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성모님의 사랑으로 늘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언젠가는 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실리니아 드림 -

감사의 인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의 많은 체험들은 앞으로 저희들의 삶에서 큰 힘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과 형제님 가족 그리고 평화의 모후 센터에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길 기원합니다.

- 오 아녜스, 오 엘리사벳 수녀 -

평화를 빕니다.

+ 평화의 모후
그레고리오 형제님께
오늘도 변함없이 메시지를 전하시기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으며 늦게나마 소식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메주고리에 1차 동기들은 매일 매일 은혜로운 시간들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키 어려운 감사로움을 기도 중에 잊지 않으며 뜻깊은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뜻밖에도 갑자기 주어진 은혜로운 순례였기에 더욱 감사드리며 얼마되지 않는 저의 정성 '평화의 모후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많은 신자분들께서도 참여하기를 기원하면서 형제님 하시는 일이 주님뜻에 합하여 영광과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사업 되시기를 기도하며 가족의 평화를 빕니다.

- Tacoma 에서 강 수녀 -

성모님의 메시지를 땀끝까지 전입시다.

메주고리에 Website, <http://www.medjugorije.hr> 돕기 평화의 모후센터 U.S.A. 에서 주관한 2월 17일자 메주고리에 성지순례단에 지도신부로 함께 하셨던 박창득 신부님은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하고 있는 <http://www.medjugorije.hr> 의 Webmaster와 총 책임자인 Fr. Colombo를 만나 논의한 끝에 박신부님이 운영하고 있는 www.Amote.com site와 <http://www.medjugorije.hr>를 Link 하는 동시에 Amote.com의 prayeroon을 통해 들어오는 기도 요청을 <http://www.medjugorije.hr>로 송부하여 선견자인 Vicka(비스카)에게 전달함으로써 메주고리에 성모님께 봉헌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동시에 아직은 최소한도의 경비로 운영하고 있는 [medjugorije.hr](http://www.medjugorije.hr) site를 도와주기로 하여 순례객들이 봉헌한 미사에물과 헌금을 합하여 필요한 \$6,000중 현재 \$3,135이 확보되었습니다.

<http://www.medjugorije.hr>가 필요로 하고 있는 도움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erver가 down이 될 경우 website전체가 완전히 down 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하는 website를 돕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은 6000불 중 현재 부족액은 2,865불 입니다. 도우실 분은 평화의 모후 센터 U.S.A.나 박창득 신부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득 신부

267 Central Ave. Orange, NJ 07050
Tel.(973)673-6722

Queen of Peace Center U.S.A.

남홍익 그레고리오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11743
Tel.(631)367-6191 / Fax.(631)367-6194

성체 신심 세미나 참가 신청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 요한 6.57-58 -

일시 : 2001년 5월 9일(수요일)-5월 13일(일요일) - 4박 5일간

장소 : Sacred Heart Monastery : Cullman, Alabama

지도신부 : 박창득 몬시뇰, 임언기 신부, 최광조 신부, 봉사자들

세미나 내용 : 성체와 성혈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대해 더 깊은 인식을 하게되어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쇠신하는 은총을 얻기 위함.

참가인원 : 50 명

참 가 비 : 250 달러

준 비 물 : 신청서를 받은 후 알려드립니다.

마감일자 : 2001년 4월 15일

신청서 보낼곳 : 최 프란치스코 신부 (Rev. Francisco Choi)

460 Park Terrace, Birmingham, AL. 35226 (Tel.205-823-6611)

신청방법 : 1) 신청서와 신청금 100달러를 동봉하여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Check는 “St. Luke Korean Catholic Church” 로 써 주십시오.)

2) 4월 22일 (일요일) 이후 취소 하시는 경우 신청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연 락 처 : 윤희정 안젤라 (Tel. 256-880-6806)

미주 평화의 모후 센터 U.S.A의 메주고리에 순례에는 유럽의 오래되고 견고한 성곽도시로서 해안가의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며 가톨릭 신앙을 고수해 온 신앙의 유적들이 많은 드브로르니크 스피리트에 있는 성지순례 관광이 각 1일씩 포함 되어 있으며 최신 숙박시설과 1일 3식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 가겠느냐?

우리 모두는 “주님 주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 가겠습니까? 저희는 당신을 사랑 하오며 당신만이 진리이심을 아웁니다.” 하고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주님과 일치 이루고 나와 내 영혼과의 일치를, 그리고 이웃과의 일치를 이루시어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와 피정을 계획하고 계시는 본당과 단체는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일정을 메주고리에 소식지에 게재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의
메주고리에 순례일정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오늘 너희들을 사랑과 자비에로 부른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여라.
자비로워라.(잠시 멈춤) 온 마음으로 진정한 자비로움의 마음은
너희들을 나의 아들에게로 가까이 이끌어 준단다.”

- 2001년 3월 18일 성모님께서 미리아나에게 발현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 -

복되신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라는 산골 마을에 발현하시기 시작하신 지도 20주년이 되어갑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일상생활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 깊은 신뢰를 가지고 의탁하여야 하며 언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성심이 피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도록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시간은 우리들이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일 시 : 2001년 5월 24일 부터
지도 신부 : 김인성 요한비안네 신부 (퀸즈성당 주임)
비 용 : \$1390 - 뉴욕 JFK출발기준
연 락 처 : 남 그레고리오 Tel.(631)367-6191, Fax.(631)367-6194

- 현대식 숙박시설을 갖춘 2인 1실, 또는 3인 1실과 함께 1일 3식(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합니다.
- 메주고리에 순례 일정에는 유럽에서 긴 역사와 견고하기로 유명한 성곽도시로써 아드리아 해안가의 아름다운 경치로 널리 알려졌을 뿐만아니라 가톨릭을 고수해 오며 1700년 동안이나 썩지않고 있는 실반 성인의 기적의 유해가 있는 유명한 신앙의 유적지인 Dubrovnik의 성지순례와 Split에 있는 성지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 순례를 원하시는 신부님과 수녀님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20명 이상의 그룹은 원하시는 날짜에 순례 일정을 정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센터 U.S.A.에서는 세계 곳곳에 발현하시어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는 성모님의 소식지를 매 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에 관한 서적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에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가 1,2,3편의 테입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 매 월 순례가 있으니 남 그레고리오 형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